

중국어회화

1회 교재

● 장이원 김 일 저



연변대학출판사

H555.9
6

H555.9
6

강화강화강화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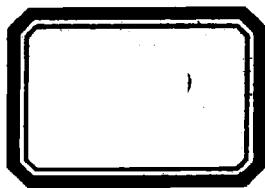
ISBN 7-5634-0739-7



9 787563 407392 >

ISBN 7-5634-0739-7/H·343(民文)

定价: 29.00 元



중 한 번 역 교 본

(中韩翻译教程)

장의원 김일 저

연변대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中韩翻译教程/张义源, 金日著.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03. 1

ISBN 7-5634-1739-7

I. 中… II. ①张…②金… III. 朝鲜语—翻译—教材 IV. H555. 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2) 第 108145 号

中韩翻译教程

作者: 张义源 金日

责任编辑: 宋昌洙

封面设计: 金胜铉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105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eabook.com> (网络书局)

E-mail: eabook@eabook.com; eabook@hotmail.com

传真: 0433-2732434

印刷: 九台市胶印厂

开本: 890 × 1240 毫米 1/32

印张: 13.25 字数: 344 千字

印数: 3000-4000 册

版次: 2003 年 1 月第 1 版

印次: 2006 年 8 月第 2 次

ISBN 7-5634-1739-7/H·343 (民文)

定价: 29.00 元

차례

제1장 번역의 일반적 개념	1
제1절 번역의 성격	1
1. 번역은 인간교제의 중개적 수단	1
2. 번역은 이중성을 띤 언어행위	2
3. 번역은 “재창작”의 언어행위	6
제2절 번역표준과 번역과정	11
1. 번역표준	11
2. 번역과정	16
제3절 번역자의 소양	35
제4절 중한번역 역사	41
 제2장 어휘번역	53
제1절 어휘적 의미의 만족성과 그 번역	53
1.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그 번역	54
2.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그 번역	67
제2절 체언번역	80
1. 대명사처리	80
2. 수사와 양사 처리	87
3. 준말처리	101
4. 외래어처리	106
제3절 용언번역	112
1. 일반동사처리	112

2. 일반형용사처리	118
3. 의성어와 증첩어 처리	127
제4절 허사번역	142
1. 전치사처리	143
2. 연사처리	158
3. 부사처리	166
제5절 중한번역에서의 한자어	181
1. 한자어의 특성	181
2. 한자어의 처리원칙	184
3. 한자어와 독음역법	186
4. 한자어의 평이성	196
5. 한자어와 고유어	197
제6절 속어번역	202
1. 성구와 속담 번역	202
2. 관용어번역	218
3. 헐후어번역	225
제7절 어휘번역의 수법과 기교	244
1. 단어의 증가	245
2. 단어의 감소	254
3. 전의역법	263
제3장 문장번역	267
제1절 문법현상의 비교와 번역	267
1. 단어의 품사 전환	268
2. 문장성분의 전환	271

3. 술어의 전환	283
제2절 복합문번역	298
1. 병렬적 관계의 복합문	299
2. 연관적 관계의 복합문	304
3. 층차가 많은 복합문	319
제3절 문장번역에서 몇 가지 수법과 기교	329
1. 어순의 변동	331
2. 문장번역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	348
 제4장 문체번역	 377
제1절 응용문체번역	377
제2절 문학작품번역	382
1. 소설번역	383
2. 시가번역	401
3. 영화번역	407
 부록: 친척 간의 호칭대조	 415

제1장 번역의 일반적 개념

제1절 번역의 성격

1. 번역은 인간교제의 중개적 수단

언어는 인간교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언어가 없으면 교제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쌍방이 서로 다 아는 동일(同一) 언어로써 교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인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접촉이 있게 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번역이란 바로 인간의 이런 수요로부터 생겨난 교제 수단이다.

다른 언어가 없다면 번역이란 것도 없다. 지금 세상에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어종만 해도 무려 2백종이나 된다고 한다. 번역이란 바로 이런 부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달성해주는 중개적 수단이며 따라서 “교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교제 쌍방의 언어를 다 알고 있는 제3자가 개입하는데 이 3자가 바로 번역자이고 이 3자의 언어적 행위가 곧 번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제 쌍방은 어디까지나 중개자 즉 제3자를 거쳐야 하는 간접적 교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교제 쌍방을 놓고 보면 자기의 언어로써 교제할 뿐이다. 즉 번역문

의 독자(청자)는 서로 다 알고 있는 언어로써 교제의 발기자와 교제하게 되는 이중어(二重語)적 교제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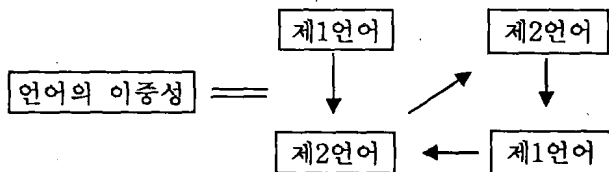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 교제요, 이중어적 교제요 하는 것은 교제하는 쌍방 즉 원문 (말)의 주인과 번역문의 독자(청자)의 사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 번역자의 교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번역자의 견지에서는 사실 교제 쌍방의 어느 쪽이든 동일 언어의 직접적인 교제이다. 번역자는 제1언어 즉 원문 언어로써 원 저자(화자)와 직접적인 제1차성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번역문 독자와는 제2언어 즉 번역문 언어로써 제2차성 교제를 하게 된다. 번역자는 간접적 교제 자가 아니라 남의 교제를 달성해 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번역문 독자(청자)는 원문 저자(화자)와 교제한다고 여길 뿐 번역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한다. 원문 저자(화자)도 역시 그러할 뿐이다. 그러니 번역자가 번역문으로써 표현하는 모든 것이 원문(화자)의 것을 번역문 독자(청자)에게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자를 중계자라고 하고 번역을 중개적 수단이라고 한다.

2. 번역은 이중성을 띤 언어행위

번역자의 언어행위는 보통 인간들의 언어행위와는 다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본질에서 특수한 언어행위라 하겠다.

(1) 번역자의 언어의 이중성

번역자는 시종 두 다른 언어행위를 대상한다. 바꾸어 말하면 번역자는 제1차성 교제 즉 원문 저자(화자)와의 교제에서는 제1언어(원문 언어)로, 제2차성 교제 즉 번역문의 독자(혹은 청자)와의 교제에서는 제2언어(번역문 언어)로 이중언어적 교제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번역행위의 첫 시작부터 제1차성 교제에서 제2언어를 상징하게 되고 제2차성 교제에서는 제1언어의 제약을 받으면서 하나의 내용을 나타냄에 있어서 두 다른 언어형식의 전환적 관계를 염두에 두게 된다. 이런 언어의 이중성을 도식으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이 도식은 번역자의 언어적 행위에서 그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번역에서 이러한 언어의 이중성은 두 언어에 대한 번역자의 조예가 참으로 출중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중국어를 잘 한다고 중국어를 잘 번역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들의 전환적 관계 및 두 언어의 유구한 문화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2) 번역자의 입장(立場)의 이중성

사람들은 다 남과 교제를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번역에서 중재자인 번역자는 번역행위에서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의 입장

에서 남의 말을 하게 된다.

제1차성 교제에서는 교제의 발기자인 원문 저자(화자)의 독자(청자)의 입장에서 교제의 접수자로 되지만 이어 제2차성 교제로 들어가면 번역자는 번역문을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제의 발기자(发起者)로 된다. 즉 원문 저자(화자)가 되어 원문 저자(화자)의 말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번역자는 “번역”을 하는 처지이지 “소개자”가 아니다. 번역자는 “객관적 입장” 또는 “중간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법은 지당치 못한 말이다. 번역자는 어디까지나 원문 저자(화자)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번역문 언어로 원문 저자(화자)의 말을 해야 하며 원문 저자(화자)의 정서, 경향 등을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어느 한 번역 연구자는 위대한 연설가 키컬(cicero)의 작품을 옳게 번역하려면 번역자가 꼭 그와 동등한 연설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와 철학적 입장에서 그만한 연설자의 재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학작품번역에서도 번역자는 원문 저자(화자)의 작가적 입장에 서야 하며 작가적 재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번역자는 원 저자의 동기, 정서, 풍격으로 경물을 묘사하고 인물을 부각할 수 있으며 원문을 손색없이 번역문으로 재현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문이 꽃이라 할 때 번역문은 그 꽃을 찍는 사진도 아니며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가화(假花)도 아니다. 그것은 가화나 사진의 꽃은 향기가 없는 죽은 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번역자의 입장이 진실로 원문 저자의 입장에 철저히 서야 그의 번역문을 읽는 독자는 원문 저자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며 그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곽말약(郭沫若) 선생은 “시를 번역하자면 우선 그 자신이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번역자의 입장이 진정으로 원문 저자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소개자”의 입장에 선다면 그것은 번역의 첫 시작부터가 잘못 됨을 의미한다. 번역은 시종 원문에 “충성”해야 한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3) 번역자의 사유의 이중성

위에서 언급된 언어의 이중성, 입장의 이중성은 그 실질이 번역행위에서 번역자의 사유의 이중성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사유의 이중성이란 제1차성 교제에서 번역자는 교제의 접수자적 입장에서 제1언어로 그 언어의 사유방식 그대로 사유하게 되고, 제2차성 교제에서는 제2언어 즉 번역문 언어로써 교제의 발기자 입장에서 제2언어의 사유 방식 그대로 사유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언어는 사유의 물질적 외피이며 도구이다. 하나의 동일한 객관사물을 놓고 그에 대한 생각(사유)은 민족적이며 지방적이며 개성적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그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고찰의 각도, 이해의 심도, 추리의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물을 두고 어떤 사람은 “좋다”하고 어떤 사람은 “그닥싫다” 또는 “나쁘다”고 다르게 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름에 따라 더욱 현저하다. 그 민족의 역사가 다르고 유구한 역사적 행정에서 이룩된 문화적 배경과 전통적 관념 등이 다름으로 하여 객관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감성적 사유, 이성적 사유, 논리적 사유 및 형상적 사유도 다른 민족과 꼭 같을 수가 없

으며 아울러 그것을 언어로 표현함에 있어서도 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원문 언어로써 원문 언어의 특유한 사유방식 그대로 사유할 줄 알아야 하며 번역에 필을 댈 때는 번역문 언어로 번역문 언어의 특유한 사유방식 그대로 사유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이다. 왜냐 하면 번역의 실질은 언어형식의 바꿈이 아니라 사유방식의 바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번역의 과정을 사유의 전환 과정이다 하며 번역은 “제2차성 사유 활동”이라고도 한다.

사유방식이 다르면 그것의 언어로서의 표현방식도 다르게 된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해 보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에서 다시 상세히 언급될 것이다.

3. 번역은 “재창작”성을 띤 언어행위

번역은 결코 1:1식의 기계적인 언어형식의 바꿈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역이요, 의역이요, 전의역이요 하는 번역방법은 그 실질이 번역자의 “재창작”의 과정이라 하겠다.

번역의 실질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줄곧 논의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의견 분쟁도 심하다.

“등치 개념론(等値概念論)”이요, “해석론” 등이 있으나 요즘 영향력이 크고 또 많은 공정을 받고 있는 이론은 “등효론(等效論)”이다.

기원 7세기, 중국의 위대한 번역가 현장(玄奘)의 번역의

지도원칙은 “원문의 본질을 따지되 통속적이어야 한다.”이었다. 한마디로 번역문의 효과에 대한 강조이다. 19세기 말엽, 중국 근대에서 유명한 번역가인 엄복은 “원문의 내용만 강조하여 번역문이 순통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다면 비록 번역하였다 하더라도 번역하지 않은 것과 같음으로 번역문의 통속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영국의 저명한 문예 이론가이며 번역가인 타이틀러(A·F·Tytler)는 “번역의 3대원칙”을 제기하여 서방 번역계의 공정을 받고 있는데, 그는 “원문의 우점이 완전히 다른 언어로 옮겨져 그 언어로 사유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이해와 강렬한 감수를 얻으며 그 정도가 원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는 감수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 부류 접수자들의 감수가 같을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이것이 바로 “등효론”의 주요내용이다.

어찌 보면 “등효론”의 실질이 “재창작”인 것이다. 접수자 감수 효과의 동일성에 대한 추구는 바로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의 언어사용 실태와 그 언어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 토대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 때문에 번역에서 “재창작”이라는 것은 원문의 내용과 형식에 의거하면서 번역문의 언어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문호 노신(魯迅)선생은 일찍 어떤 의미에서 말할 때 번역은 창작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다. 순수한 창작은 작가가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지만 번역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번역은 원문 형식의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번역문 언어의 표현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원문의 사상내용을 정확히 재현하는 “재창작”활동이다. 어떠한

언어이든지 그 언어는 자체의 내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객관사물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의 언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차이성은 번역자의 필 끝에서 묘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번역자의 출중한 문화지식과 두 언어에 대한 완전한 파악 그리고 능란한 필치, 상당한 창작 기능이 필요 된다. 그래서 번역자는 원문의 표현형식 그대로 직역을 할 수도 있고 원문의 표현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의역을 할 수도 있으며 원문에 있는 단어를 없애버리거나 번역문에서 원문에 없는 단어를 더 보태기도 하며 어순(語順)을 고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번역자의 창작이라 하겠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宾主入座时, 有人发出叹息:“甯, 多美, 看了叫人开胃!”

△주인과 손님들이 식탁에 앉자 누군가 혀를 차며 “이거, 눈이 부시는구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참 잘된 번역이다. 번역자는 두 언어의 언어적 특징과 표현방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특정된 언어적 환경에서 번역문의 표현수법대로 아주 적절하게 창조적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 번역이 창작성을 띠었다고 번역자가 임의로 자신의 창작을 가침하여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한 단편소설에 “细想起来, 这很奇怪……”란 말이 있는데 그 번역문을 보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하면 참 이상도 하다……”

로 되었다. 번역문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라는 말은 분명 번역자가 임의로 집어넣은 말이다. 번역에서 번역자의 “재창작”이란 어디까지나 원문을 손색없이 옮겨오기 위한 “재창작”이지 “새 창작”이 아니며 “개작”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기존된 원문의 전반을 티끌만한 손색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번역문 언어어로 옮겨 놓자는 예술적 가공일 따름이다. 번역자는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번역이 창작성을 띠었다면 필연코 번역자의 개성도 번역문에서 표현될 것이다. 하나의 원문을 여러 사람이 번역했을 때 그들의 번역문이 꼭 같을 수 없다. 그 예로 두 가지만 들어 보기로 하자.

○神策究天文,
妙算穷地理。

이 한문시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₁ 그대의 신기하고 묘한 꾀는

천문과 지리도

모조리 통달하였으리.

△₂ 신기한 술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교는

지리를 다 했도다.

△₃ 신기한 책략이

천문에서 나오고

기묘한 계획이
지리에 맞는구나.

세 번역문이 원문을 재현함에 있어서는 다 손색이 없으며 번역문의 짜임새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세 번역문은 각기 세 번역자의 개성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문 Δ_1 은 원문의 형식에 그리 구애되지 않고 “策”와 “算”을 피로 통칭하면서 개괄적 수법으로 처리했으며 “神”과 “妙”는 “피”의 병렬적 용어로 붙이면서 어순을 바꾸어놓았다. 그런데 번역문 Δ_2 는 원문의 언어적 구조 특징을 살리면서 두 행으로 3·3·3·4조로 시적 운율을 잘 살렸으며 번역문 Δ_3 은 4행으로 주술적 관계를 선명히 하면서 민요시에 가깝도록 옮겨놓았다. 이렇듯 세 번역문이 언어형식에서는 다르지만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 옮김 및 형상의 창조에서는 원문에 손색을 주지 않았다.

딕킨즈(Dickens)의 한 작품을 임서(林纾), 동추사(董秋斯), 장곡약(张谷若)이 중국어로 번역하였는데, 다음 대목의 번역문에서도 다 각자의 개성·풍격대로 옮겨졌다.

Δ_1 闻人言,钟声丁丁时,正吾开口呱呱之声。(임서)

Δ_2 据说,钟开始敲,我也开始哭,两者同时。(동추사)

Δ_3 据说那一会儿,当当的钟声,和呱呱呱的啼声,恰好同时并作。(장곡약)

번역문 Δ_1 은 문언문(文言文)으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문 Δ_2 는 비교적 평탄하게 백화문(白话文)으로 되었으며, 번역문 Δ_3 은